

<서평>

## 쾌락없는 욕망의 서사

- 베트남의 젊은 작가, 응웬옥뜨의 『끝없는 별판』\*를 읽고

하 인 숙\*\*

『끝없는 별판』은 『반청춘(半靑春)』(한국출판년도: 1969년),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한국출판년도: 200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베트남어를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소설이다. 이외에 불어나 영어로 된 베트남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한 사례<sup>1)</sup>가 있긴 하지만 아직 동남아 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국내에서 이 소설의 출간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한국에 소개된 베트남 소설은 대부분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작품들이었다. 그만큼 베트남 전쟁은 참전국이기도 한 우리에게 이미지가 크게 각인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끝없는 별판』은 소재나 주제 면에서 베트남 전쟁과 거리가 있다. 이 작품은 베트남 가족의 일상이 주요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한국 내에 직접 번역하여 출간된 베트남의 현대소설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끝없는 별판』은 낡은 거룻배를 타고 끊임없이 메콩강(Mê Kông)을 유랑하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이다. 시간적으로 ‘현재-과거-현재’

---

\* 응웬옥뜨, 『끝없는 별판』, 하재홍 옮김, 동아시아, 2007. (Nguyễn Ngọc Tư, 『Cánh đồng bất tận』, 2005년)

\*\* 한국항공대학교

1) 제 3국의 언어를 거쳐서 한국어로 번역된 다른 소설책은 『사이공의 흰 옷』(1986년), 『불멸의 불꽃으로 살아』(1987년), 『제목을 붙이지 못한 소설』(1993년), 『전쟁의 슬픔』(1999년)이 있다.

의 플롯을 따르며, 내용상으로 ‘엄마의 가출-아버지의 방황-동생의 가출-나와 아버지의 화해’로 마무리된다. 이 과정에서 화자 ‘나’와 동생 디엔의 성장통을 묘사하였다.

작품의 시작은 쫓기는 매춘녀를 주인공 가족이 거룻배에 숨겨주면서부터이다. 매춘녀는 이 책에서 ‘여자’로 계속 표기된다. ‘여자’는 작품의 현재를 이끌어가며, 작품의 마무리에서 화자 ‘나’와 소통하고, 동생 디엔이 가출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다. 결국, ‘여자’는 ‘나’와 ‘아버지’를 화해시킨 매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나’와 동생 디엔의 성장과정을 일단락 짓는다.

엄마의 가출로 세상과 스스로 단절하기로 마음먹은 아버지는 ‘나’와 동생을 데리고 유랑생활을 시작한다. 때문에, ‘나’와 동생은 학교 교육에서 벗어난 성장기를 보내게 된다. 아버지는 세상과 단절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인 남매(화자와 남동생)와도 소통부재의 관계로 지낸다. 그러다보니 이 외로운 남매는 말을 하지 않고도 서로의 뜻을 알아볼 정도로 가까워진다. ‘나’의 고통과 디엔의 고통은 함께 간다. 쌀 바구니와 벽 사이의 틈새에서 놀기를 좋아하던 남매는 돌보아 주거나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아픈 경험을 통해 하나씩 세상을 배워간다. 태양, 바람, 별, 나무 등을 보고 길을 찾는 법, 아버지의 매를 건디는 법, 뱀에게 물렸을 때 이빨 자국을 보고 독사를 가려내는 법, 나비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날씨를 예보하는 법, 벌판을 보고 얼마나 머물 수 있을지 판단하는 법 등을 터득해간다.

이 책은 메콩강을 젖줄 삼아 살아가는 베트남 남부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 흔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베트남의 남매가족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의 문제와 감정선을 심층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책은 읽는

내내, 앞 뒤 이야기의 연결고리에서 불현듯 감동의 순간을 선사하는 대목들을 만날 수도 있다. 작가의 체험과 독자의 체험이 조용하여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문장들이 그러하다. 작가의 인물 묘사가 뛰어나다는 점도 지적해 두고 싶다. 그 한 예로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아버지는 “마치 커다란 불가마 속에서 방금 빠져나온 도자기 같은 모습이었다. 형상은 유지하고 있되, 이미 곳곳에 금이 가서 눈요기로 그저 멀리서 잠자코 바라보기만 해야 되는 그런 금단의 존재였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깨어져 없어져버릴 터였다”(67-68 쪽)라고 표현하였다. 이 소설에서 거룻배, 가난, 고통스런 사람들의 무분별한 욕망들, 드넓은 강물의 뒤척임 등이 이국적 실체감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소설의 서평을 쓰려고 하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필자의 작은 경험을 말할 수밖에 없다. NGO장학금으로 한국에 유학 온 응언(Ngân)<sup>2)</sup>으로부터 이 책을 처음 건네받았을 때, 반가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다 읽었다. 책이 한국에 번역된 직후인 2007년의 일이다. 한 번에 다 읽으면서, 이 책의 거친 서사때문인지 적지 않은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그래서 이 책이 필자에게 왜 불편한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것이 서평을 쓰게 된 진짜 이유이다.

처음에 이 책이 필자에게 불편했던 이유는 아마도 베트남의 젊은 작가 응웬옥뜨의 창작기법과 관련된다. 등장인물인 ‘여자’,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자’를 대하는 화자 ‘나’(소녀)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여자’를 한편으로 동정하고 한편으로 조롱한다. 이렇게 ‘나’의 ‘여자’에 대한 동정심과 비웃음이 걸러지지

2) Ngân은 베트남에서 필자와 인연을 맺어 지금까지 연락이 닿고 있는 베트남의 젊은 이. 베트남의 봉사단체인 ‘GoodWill’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한국에 유학을 왔었다.

얇은 날것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있다. 앞부분에서부터 ‘여자’는 아버지를 유혹하고, 동생 ‘디엔’과 ‘나’는 노래를 부르지만 그 노랫소리는 “오두막에서 흘러나오는, 열에 들떠 헐떡거리는 소리를 제압할 수 없”(35쪽)다는 식의 성적(性的) 표현들이 이어진다. 특히, 결말에서 주인공 ‘나’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임신하게 되었을 때, 필자는 정신이 이따할 정도였다. 이는 베트남 사람들과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호의적인 필자의 느낌에 반(反)하는 것이었다. 베트남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작은 일에도 기뻐할 줄 알며, 애정 표현을 아끼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필자의 느낌이 이 작가의 적나라한 표현기법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

이 소설이 필자에게 불편했던 두 번째 이유는 이 책이 한국의 독자들이 독서에서 갖는 일반적인 기대감을 배반하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이, 화자인 ‘나’는 사춘기 소녀(9살-15살까지)이다. ‘나’가 겪는 일상과 예사롭지 않은 경험들이 극도로 적나라하기 때문에 독자를 불편하게 한다. 그런데 바로 그 적나라함이 독자를 배려하는 어느 부분에서 심리적인 쾌락을 동반해야 할 터인데, 『끝없는 별판』은 전혀 그렇지 않다. 멀비(Laura Mulvey)는 시선의 주체를 따져서 쾌락의 근원을 밝히고 쾌락이 서사구조를 결정한다고 하였다.<sup>3)</sup> 그러나 이 소설은 화자는 있되, 주체화할 수 있는 시선은 없다. 아예 ‘보는 자’의 혹은 ‘보이는 자’의 ‘시선’을 거부하는 것 같다. 당당하게 적나라한 서사를 이끌어갈 뿐, 시선 따위를 고려하지 않는, 그야말로 익히지 않은 이야기 자체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흡한 서사라거나 성숙하지 못한 표현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독특하게 직조된 서사기법을 사용할 뿐이다. 말하자면, 이 소설은 ‘쾌락’을 동반한 후련함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철저하게 기존의 ‘쾌락 원칙’을

3) Laura Mulvey, "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 Screen. Volum 16. Number 3, 1975.

무시한다.

『끝없는 별판』에는 사람들의 끝없는 욕망이 담겨있다. 예쁜 옷감을 탐내는 엄마, 여자를 탐하고 망가뜨려 버리는 아버지, 아버지를 탐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를 선택하는 여자들, 학교에 다니고 싶은 주인공 남매 등, 사람들의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끝없이 펼쳐진다. 이러한 욕망들이 시선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쾌락원칙을 배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친 욕망이 되지만 오히려 그만큼 진실한 울림을 주게 된다. 응웬옥뜨가 펼치는 서사는 이렇게 쾌락이 보장되지 않는 욕망의 환유이다.

(가) 그리움이란 부스아 과일이 자라는 네모반듯한 마당에서 뛰노는 것, 우리가 직접 어떤 나무를 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열매를 맛있게 따먹는 것을 뜻했다.(96쪽)

(나) 유목생활은 우리에게 서글픈 마음을 갖지 않도록, 천막을 접을 때 무덤덤한 마음으로 다른 별판을 향해 떠날 수 있도록, 다른 셋강의 물줄기를 아무렇지 않게 따라갈 수 있도록,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그 무엇에도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을 강요했다.(99쪽)

두 인용문 (가)와 (나)는 화자가 ‘정착에의 욕망’을 드러낸 부분이다. 부스아 과일 나무를 심을 마당이 있는 집에 살고 싶다는 욕망이 ‘그리움에 대한 정의’가 될 수 있는 것은 화자가 마당을 간절히 욕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마당’이란 집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또 (나)에서 ‘유목생활이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화자가 ‘그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고 싶어한다’는 욕망의 다른 말이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정착(定着)’이란 그리움을 채울 수 있는 길이자,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된다.

결국, 필자가 처음에 이 책을 읽고 불편했던 것은, 독자인 필자가

서사가 주는 쾌락에 이미 익숙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서사적 재미는 기대감을 포함한다. 자본주의 서사 원리는 잘 팔려야 하고, 그래야 하기에 재미있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서사는 대개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응웬옥뜨의 서사는 서사적 쾌감 혹은 욕구 충족과 같은 자본주의적 서사와는 다른 위치에 놓인다. 이렇게 독자의 기대감을 배반한 자리에 강하고 적나라한 가족의 아픔과 가난과 이별과 그리움이 배여 있다. 『끝없는 별판』은 현실을 가장(假裝)하기를 거부하고, 체험된 그대로의 진실에 봉사하고자 한다. 이 책의 매력은 깊이 다가가야 찬란하게 느껴지는 메콩강처럼, 기존의 서사 읽기 패턴을 부정해야만 얻을 수 있다.

이 작품의 공간 배경이 되는 메콩강<sup>4)</sup>은 처음 보면, 한강과 달리 물빛이 흙탕물 색깔이어서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메콩강을 여러 차례 탐방하고, 메콩강 근처에서 숙박하고, 메콩강의 수상가옥(水上家屋)들을 방문하거나 수상시장(水上市場)을 둘러보기도 하면서 점점 메콩강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깊숙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메콩강의 갈빛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갈색 물빛인 메콩강이 깨끗하며, 베트남의 젓줄임을 절감하게 된다. 이처럼 메콩강의 매력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끝없는 별판』의 창작기법도 그러한 점이 있다. 불편하고 낯설지만 읽을수록 제 맛이 나는 소설이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폭발적인 반향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 소설은 기존의 베트남 소설과 다른 색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서사기

4) 메콩강은 티베트 고원에서 시작한 길이 4,350km의 동남 아시아 최대의 강. 메콩강은 캄보디아를 거쳐서 내려오다가 베트남 남부에서 크게 두 줄기로 갈라지면서 베트남의 곡창지대인 델타(Delta)를 형성한다. 바다로 이어지는 메콩강은 베트남의 벤째(BÉN TRÉ)와 속장(SÓC TRĂNG) 사이 좁에서 다시 여러 작은 강줄기(지류들)로 갈라진다. 호치민 시에서 가까운 베트남의 메콩강 지역은 미토(MỸ THO)와 칸터(CẦN THO)이다.

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출판 금지되었던 것이다. 『끝없는 별판』은 시종일관 독자를 괴롭히는 마조히즘적 서사를 가졌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아프게 형상화한 베트남 젊은 작가의 성찰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응웬옥뜨의 『끝없는 별판』에서 쾌락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인간의 욕망을 그려낸, 독특하고 진실한 서사를 만날 수 있다.

베트남 최남단에 위치한 까마우(CÀ MAU) 지역에서 출생한 응웬옥뜨(Nguyễn Ngọc Tư)는 자신이 빈농(貧農)의 딸이라고 하였다. 그가 탐구한 베트남 남부에 살고 있는, 처참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난 이 작품은 베트남의 미풍양속을 헤친다는 이유로 이 작가를 <사상교육위원회>로 소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눈과 귀, 개인의 경험만을 지나치게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자신의 결론과 믿음에 정말 많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160-161쪽, 작가의 말 중에서) 응웬옥뜨는 ‘자신의 결론과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가 자신부터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겠다는 말이고, 더불어 문학을 통해서 자신의 고집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세계를 보여주고 싶다는 작가의 소망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이 작품을 낳듯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일반 독자 중 한사람인 필자도 지금까지의 읽기 습관을 넘어설 때 비로소 이 작품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결론과 믿음에 신중하라!’는 작가의 말처럼 말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메콩강의 감미로움을 전해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는 하루 평균 50여명의 메콩강 여성들이 한국 신랑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167쪽, 율긴이의 말 중에서)<sup>5)</sup> 이러한

5) 이 책이 번역 출간된 2007년 한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38,491건 중에 한국남성과

통계상의 수치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수많은 베트남 여성들의 손에 의해 길러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이 책은 이렇게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베트남 여성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문학적 성과들 중의 하나이다. 앞으로 한국 땅에 이러한 베트남 작가의 문학서적들이 더 많이 출간되기를 바란다.

『끝없는 별판』의 번역은 빈례의 장편소설 『그대 아직 살아있다면』을 번역했고, 현재 호치민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하재홍 님이 맡아 주셨다. 그분의 노고가 없었다면 만날 수 없는 작품이기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한국어 출판에서 베트남 남부 지역의 사투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베트남어를 전혀 표기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다.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음식명(라우무옹:RAU MUÔNG (kind of vegetable), 쨌:CHÈ (sweet soup), 늑맘:NUỚC MẮM (fish source))이나 생활용품(논라:NÓN LÁ (a special cap for women)) 등은 베트남어 표기를 달아도 되지 않을까.

---

결혼하는 외국여성은 총 29,140건이고, 그 중 베트남여성이 한국남성과 혼인하는 건수는 6,611건(22.7%)을 차지한다. (통계청 <http://www.nso.go.kr>)